

# 1950년대 전쟁기시의 내면의식 연구

— 모운숙의 『風浪』을 대상으로 —

문 선 영\*

차 례

- |                   |                     |
|-------------------|---------------------|
| I. 역사의식의 내면화      | III. 비극적 전쟁체험과 내면의식 |
| II. 전쟁 체험의 의미화 방식 | IV. 마무리             |

## I. 역사의식의 내면화

1950년대 시는 전쟁 체험의 형상화 방식에서 다양하게 변주된다. 특히 1951년에 상재된 모운숙의 『風浪』은 다양한 형상화 가운데 전쟁 체험을 정서적인 문맥 속에 용해하고 있는 경우여서 매우 주목되는 시집이다. 이 글은 모운숙의 『風浪』을 중심으로 전쟁기 시적 형상화의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무엇보다 『風浪』이 시인의 내면의식을 바탕으로 전쟁기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어 작가의 세계관에 그 궁극적 근원을 가지는 셈이다.

내면의식은 정신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인격적 인생이나 정신의 존재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내면의식은 자기의 의식이나 주관성을 대상화하여 주제로서 의식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sup>1)</sup> 내면의식 또는 사유를 전제할 때 우선 문제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삼아야 할 것은 시적 동기의 문제이다. 동기의 선택은 논의의 성격 자체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사유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자신이 증거물로 삼아야 할 장이 어떤 장인가, 곧 자신이 어떤 현실이나 시대를 상관자로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사유는 현실이라는 장 속에서 눈뜬다.

형이상학적 판단을 유보한 채 현실을 직시할 경우, 우리의 삶은 대부분 우발적이다. 사유는 이 우발성을 비켜갈 수 없다. 사유는 이 우발성에서 출발해 그 안에 접혀 있는 필연성을 최대한 펼쳐 내고자 한다. 사유는 삶의 근원적 불투명성에 이성의 빛을 던진다. 시대의 불투명성은 사유에게 타자로서 다가온다. 사유가 진정한 자기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타자를 가로질러야 한다. 타자와 자신의 얽힘을 한 겹씩 풀어냄으로써 자기 이해가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자로서 주어진 현실과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때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이나 시대의 파악을 빠뜨릴 수 없다. 1950년대 전전기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모운숙의 『風浪』이 타자인 1950년대 전전기 현실과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나아가 전전기가 보이는 분열증의 증세를 시인이 어떻게 갈무리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전전기 당시 주도 담론으로서 사유와 지배 담론으로서 사유가 타자를 어떻게 가로지르고 있는지 가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Ⅱ. 전쟁 체험의 의미화 방식

전쟁은 문명의 소산이기도 하고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행위이기도 하다. 전쟁은 합의를 도출할 방법이 없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이 내린 판결은 정의보다 힘에 기초한 것이어서<sup>1)</sup>, 전쟁은 인간 역사에서 진보를 역행시키는 부정적인 요소이며 소모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

---

1) 『文藝大辭典』, 학원사, 1962, 147쪽.

2) Bernard Law Montgomery, 『전쟁의 역사』 I (송영조 옮김), 책세상, 2001/개정 1판 2쇄, 22쪽.

다. 무엇보다 전쟁은 역사이다. 전쟁과 일상성 부딪혔을 때 일상은 무너져 버린다. 전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의 익숙한 리듬에서 끌장나는 것이다.<sup>3)</sup> 이러한 사정은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이 한 시대의 삶과 정신적 궤적을 반영하는 주요한 산물임에 주목할 때 1950년대 한국시가 한국전쟁의 체험을 시 속에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후의 문학인들에게 실질적인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전쟁체험은 1950년대의 두드러진 지적 경향이자 동시에 전후 한국시의 본질을 이해하는 매우 본질적인 단서가 된다.

전쟁이 대체로 글쓰기의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어 버렸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작가의 일상적 공간이 문학적 상상력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데, 전쟁으로 인한 일상성의 파괴가 글쓰기 지형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 때문이다. 오래 지속되던 일상적 삶은 파괴되고 기존의 상징적 질서조차 분열되어 버린 탓이다. 그러나 이렇듯 글쓰기 토양 자체가 척박했던 전쟁기임에도 불구하고 80여 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양산되었다.<sup>4)</sup> 이때 전쟁과 문학의 상관성은 시의 경우 시인이 전쟁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이다.

전쟁기의 문학 양상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과 평화를 열망하는 정

3) Karel Kosik, 『구체성의 변증법』(박정호 옮김), 거름, 1985, 68쪽.

4) 이 시기를 '전쟁·애국시대'로 보고 '전쟁의 현장 그 자체를 다룬 현장시', '반공 애국시', '전쟁의 어두운 현실을 다룬 작품'들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핀 글이 있다. 오양호, 『戰後 35년의 韓國詩·1』, 『시문학』 통권 172호, 시문학사, 1985. 박태일은 이 시기를 전쟁 수행기로 보고 국가의 신격화와 복종, 헌신과 진혼을 노래한 '애국심의 수직 위상'을 다룬 시, 전우애와 전상자·전재민 가족을 다룬 '동포애와 내집단에 대한 관용'을 살핀 시, 외부의 적대세력과 내부의 적대세력에 주목한 '신익 이원론과 비관용'을 다룬 시로 전쟁기 작품을 개괄하고 있다. 박태일, 「1950년대 한국 전쟁시 연구」, 『경남어문논집』 제5집, 경남대 국문학과, 1992.12. 한편, 한형구는 북한의 전투적 호소와 절절한 투쟁적 목소리에 찬 전쟁시에 비하면 남한에는 전쟁시의 개념이 없다고 본다. 곧, 전쟁의 무상성이나 반전성, 평화와 인간성 옹호로서의 휴머니즘 강조들의 내용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시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남한 시사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시 개념이 부재하였음과 동시에 50년대 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전후시' 개념이 통용됨으로써 남한 문학사의 의식 속에는 어떤 점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전쟁시 자체가 부재하는 양상을 드러내게 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한형구, 「1950년대 한국시」, 『1950년대 문학 연구』,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엮음, 예하, 1991.

조가 지배적이다. 전시라는 상황하에서도 꽤 상당수의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승리와 패배라는 이원론에 입각해서 전쟁 상황을 고찰하거나<sup>5)</sup>, 동포애와 인간애를 표출했으며<sup>6)</sup> 인간 실존 문제에 골몰한 작품들이 양산되었다.<sup>7)</sup>

전후 한국시는 전후 폐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전통의 파괴라든지 전통의 부재 상황을 경험한 만큼 전통주의적 경향을 의식적으로 내보였으며(서정주, 박재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후반기」 동인을 주축으로 전시와 전후라는 상황 속에서 전통 부정의 예술적 분위기를 넘나들면서 모더니즘 경향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과 모더니즘의 구도뿐만 아니라 전영경, 민재식, 송옥 등을 위시한 전후 한국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내장한 풍자시도 여럿 양산되었다. 이러한 전통시와 모더니즘시, 풍자시의 구도는 뒤이은 1960년대의 참여시와 순수시의 개념 재편으로 그 명맥이 이어진다. 이른바 전쟁 장시가 다수 창작된 점도 주목된다.<sup>8)</sup>

1950년대 전쟁기 장시는 사회 역사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약에서 출발한다. 한국전쟁은 민족내분이라는, 적 아닌 적과의 싸움이라는 모순을 처음부터 꺼안고 시작되었다. 전쟁기 3여년 간의 참혹한 전쟁은 1950년대 한국사회의 상황이었고 또한 절대조건이었다. 전쟁은 일상을 비롯한 모든 삶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당대 사람들은 그 폐허 위에서 절망하고 또 그 절망을 극복하고자 처음부터 애써야만 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서 전쟁기 장시는 전쟁으로 야기된 상흔들을 감각과 순간성을 존중하는 서정시로는 담기 어려웠던 장르 사회적 맥락에서, 그리고 전쟁으로 빚어진 사회의 혼란상들을 거침없는 긴 호흡으로 읽어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혼란기라는 시대 상황의 맥락에서 창작된 문학 양식이다.

시에서 형식의 문제는 시인의 시정신과 직결된다. 사물의 순간적 파악이나

- 
- 5) 이영순의 <世紀의 悲劇>, 이호우의 <旗발>, 김순기의 <二等兵>, <勇士의 무덤>, 윤영춘의 <우리는 祖國을 지키는 勇士>, 조지훈의 <다부원에서>, 모운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조영암의 <屍山을 넘고 血海를 건너>들이 있다.  
 6) 김순기의 <어린 斥候兵>, 설창수의 <戰傷者>, 모운숙의 <당신의 신부로>, 김영삼의 <祖國이여! 이 년부터 거두시라>가 대표적이다.  
 7) 박거영의 <악의 노래>, 김종문의 <불안한 토요일>을 들 수 있다.  
 8)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장시 연구」, 부산대 국문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8 참조.

시인 자신의 순간적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서정시는 원천적으로 그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다. 서정시란 연속적이고 역사적인 또는 서사적인 시간에 항상 관심이 적은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시는 역사적인 시간이나 서사적인 시간에 매우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인물과 사건을 재현하는 모방적 양식인 이야기를 채택하기도 하고, 화자와 대상, 곧 사건 사이의 거리 확립이라는 객관성을 그 본질로 지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장시는 정서나 감정의 순간 파악이라는 짧은 서정시에 비해 훨씬 더 사회역사적 현실에 근접하는 형식인 셈이다. 산문정신 또는 서사정신은 곧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 하려는 정신이고, 이러한 서사정신이 시에 수용되는 경우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인간 성격의 표출에 유리하다.<sup>9)</sup> 그러므로 이러한 서사정신 또는 산문정신은 현실참여 정신의 다른 말이다. 산문정신의 강화 현상이 빚어낸 장시는 무엇보다 변화를 수반하는 1950년대 시사의 뚜렷한 한 흐름으로 주목할만한 시형식이다. 전쟁기에 장시를 시점으로 묶어낸 시인들은 이영순, 김중문, 박거영, 김용호들이다.<sup>10)</sup>

이렇듯 전쟁시가 전쟁 체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길이에 따라 장시와 단시가 있을 수 있고, 주제의 표출 방식에 따라 외면화와 내면화가 가능하다. 또 전쟁기 상황에 따른 저항의지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저항성과 간접적인 저항성 또는 적극적인 저항성과 소극적인 저항성이 가능하다. 또 전쟁 체험의 장소에 따라 전방 체험시와 후방 체험시가 가능하고, 전쟁 체험의 주체에 따라 군인시와 민간시가 가능하다. 이렇듯 다양한 전쟁 체험의 의미화 방식 가운데 이 글은 모운숙의 『風浪』을 주제의 표출방식에 따른 내면화에 유의하여 살피고자 한다.

9)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78, 59쪽.

10) 직접 전장으로 중군했거나 후방에서 전쟁의 폭력성과 상처를 감무리하였던 시간  
에 한국전쟁은 그 자체로 당대 시인들에게 쉬이 극복할 수 없는 부채의식을 남  
겼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인들이 짧은 길이의 서정시 대신 지배적으로 장시  
를 선택한 까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응전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역사 체험에  
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에 견주어 역사의 시간과 사건의 운명을 담고  
자 한 시인의 의식이 시 형식의 장형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 Ⅲ. 비극적 전쟁체험과 내면의식

모운숙의 『風浪』은 1951년 4월 30일 대구 문성당에서 나왔다. “이 冊을 삼가 祖國을 爲해 犧牲된 愛國者와 國軍將兵의 靈前에 삼가 바치나이다……”라는 헌사가 맨 앞에 실려 있고, “釜山松島 病床에서” 쓴 「序錄」이라 이름 한 글쓴이의 서문과 조연현이 쓴 「跋文」이 시집 뒤에 실려 있다. 제1부의 「愛國篇」은 한국전쟁 중 적치 구십일 간의 수난 속에서 쓰여진 것이며 제2부의 「戰爭篇」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발생한 시인의 애국시편들이다. 제3부의 「抒情篇」은 해방 이후 틈틈이 쓰여진 시인의 아름다운 서정시초로 엮여졌다.

전쟁기에 나온 40여권의 시집 가운데 모운숙의 『風浪』이 각별한 이유는 전쟁기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한 데 있다. 많은 전쟁 체험시들이 생경한 장면 묘사나 적과 동지가 분명한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반공사상에 골몰한 반면, 모운숙의 『風浪』은 전쟁의 상황을 구체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적 화자의 서정적 어조로써 전쟁을 내면화하는 데 바쳐져 있다. 곧, 서사와 서정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면서 전쟁의 체험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風浪』인 셈이다.

두루 알려진대로 모운숙은 전쟁기에 「문충구국대」에 몸 담으면서 전쟁의 체험을 시화했다. 전쟁 발발 다음날 26일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이른바 「문충」 간부들은 문예사 사무실에 모여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27일에는 「비상국민선전대」를 조직하였다.<sup>11)</sup> 이후 많은 문인들이 대구로 피난했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8월에 대부분 문인들이 다시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9월에 전세가 역전되자 문충구국대원들은 진격하는 국군을 따라 북으로 종군하였다.<sup>12)</sup> 서울이 수복되자 「문충」은 10월 9일 「打共文化人 蹶起大會」를 국립극장에서 개최하고 문화인의 단결과 「타공사상」을 고양하는 동시에 “평화의 사도 UN의 화신 우리를 대신해 죽은 용사에게 명복을 빌자”라는 영문과 국문으로 된 포스터를 발간하였다.<sup>13)</sup> 그리고 「문충구국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신문사에서

11) 김운성, 「6·25와 문단」, 『해방문학20년』(한국문인협회 편), 정음사, 1966, 78쪽.

12) 『臨時首都天日』, 부산일보사, 1985, 738-740쪽.

13) 국방부 정훈국 엮음, 『정훈대계 I』, 국방부, 1956, B232쪽.

「문총」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대장에 고회동, 부대장에 이하운, 모운숙, 사무국장에 박목월, 차장에 최인옥들이 선출되었다.<sup>14)</sup> 문인으로서의 애국심이나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들이 난무한 가운데 모운숙은 『風浪』을 난산한 것이다.

여기 大部分 모여진 나의 글들은 기술적으로 完成된 詩라기보다 내가 직접 보고 當한 人間으로서의 感情을 솔직히 記錄한 隨想感들이다. (...) 나는 숨으며 굽주리며 학대받으며 멀며 孤獨했다. 祖國, 民族, 이러한 形象들도 周圍와 環境이 變한 곳에서는 生角해낼 수 없으리만치 人間이란 적고 약한 存在인것을 발견했다. 反面에 제나라의 날개 밑에서만 人間은 저의 本性과 長成을 約束할 수 있다는 眞理를 또한 알았다. 큰 힘을 가진듯한 愛國者들도 敵의 앞에선 나라보다 自己를 다리고 다라나는것을 보았다. 敵은 愛國心보다 強한 偉力を 所有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나라나 政治나 主義를 論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하나의 미미한 人間으로 태어난 내가 人間으로 듣고 느낀 것을 적은 글로 表現해본것 뿐이다.

「序錄」의 일부본이다. 『風浪』이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서 출발한 것은 사실이다. 『風浪』은 시인이 “직접 보고 當한 人間으로서의 感情을 솔직히 記錄한 隨想感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으로 듣고 느낀것을 적은 글로 表現해본” 『風浪』이 시인의 창조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와 만나면서 충분히 그 서정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놓칠 수 없다. 이때 『風浪』은 대부분의 전쟁시가 보이는 선악의 인간 윤리의 문제나 전쟁의 비참함, 인간 존엄성의 문제나 참상의 고발과 같은 단순한 계몽주의적 담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적극적 자기동일성을 만난다.

전쟁 상황 속의 인간은 하나의 오염된 존재다. 그가 아무리 자아의 고결성을

14)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문총창립과 문화운동10년소관』, 선광, 1957, 26쪽.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자, 대부분의 문인들은 남쪽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때 부산으로 후퇴한 「문총」은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51년 3월 1일 부산극장에서 「3·1절정축기념예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대구에서 피난하고 있던 문인들은 1951년 3월 9일 공군의 지원하에 공군 중군문인단 「창공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이후 이를 계기로 육군, 해군에서도 중군작가단이 결성되고, 문인들의 중군활동은 군의 지원하에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위의 책, 26, 319쪽 참조.

고집하고 이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더라도 이런 상황과 교섭하면서 살고 있는 한 그의 실존은 오염되어 있다. 더구나 현대시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과거와 같이 고결한 자아, 이상적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된 존재로서 고통 속에 번뇌하는 인간, 아니 평범한 인간상이다. 오염된 실존의 고뇌가 지속됨으로써 개인적 자기동일성을 형성하는 인간에게 우리는 더욱 공감하고 있다. 이때 시적 화자는 복잡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아형성의 양상을 보인다.

친구도 사랑도 다 - 간 나라에  
수수나무 너는 안 가고  
내품을 이처럼 가리워 주니?  
어머니같이 정겨운 수수깥 냄새야  
사람이 오거든  
너와 나의 이야기를 알려 주지말아.

네품에 死刑囚가 숨었던 말을  
행여 아무에게도 눈짓 하지말아.

수수일사귀야!  
나를 아무도 모르게 안아다오.  
네 일사귀로 내 숨결을 덮어다오.  
- <수수밭에서>

“1950년 8월 10일 밤 서울 郊外서” 쓴 작품이다. 상황이 전쟁 중이므로 화자도 전쟁 속에 놓인 비극적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시 시인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그가 회상하는 과거 수수깥은 “어머니같이 정겨운” 냄새를 지녔다. 그는 전시 상황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수수나무에 몸을 숨기면서 연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런 소외가 완성된 인격체나 적어도 하나의 개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기동일성의 혼란을 가져왔지만 그는 도전적으로 “사람이 오거든/너와 나의 이야기를 알려 주지말”라고 경고한다. “나를 아무도 모르게 안아”달라고도 하고 “네 일사귀로 내 숨결을 덮어”달라고도 한다. “네품에 死刑囚가 숨었던 말을/ 행여 아무에게도 눈짓 하지말아”달라고 애원하기도 한다. 전시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나약한 인간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때 시인은 자아의 고결성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친구도 사랑도 다 - 간 나라에”



몸을 숨기고 있는 오염된 자아의 파편들로 오히려 그의 전시 상황하 삶은 자아의 지속감을 보다 리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1부 「受難篇」은 한국전쟁 중 적치 구십일 간의 수난 속에서 쓰여진 작품들이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온 사람들>, <깨여진 서울>, <무덤에서 나리는 소낙비>, <국회원 방송>, <끌려간 사람들>, <기다리던 그 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와중과 피난길에서 만나는 좌절감과 절망감의 정조가 대부분이다.

어둠이 옵니다. 때아닌 어둠이 옵니다.  
하늘빛은 흐려져가고 山 그늘은 흔들립니다.  
해는 비뚜러지 山谷에서 사라진 후  
언덕은 부서져 바다로 흘러가고  
새들은 죽지를 다쳐 날지 못합니다.

지는 어둠속에 비가 나립니다.  
어느 山에선가 물리는 바람소리  
하늘이여 드르시나이까?  
저 피 우에 쓸어지는 生命의 통곡소리.

산에도 강에도 숨을곳 못 찾는  
쫓기는 이 겨레 슬픈 行列을  
이는 누가 보낸 절망입니까?  
누가 보낸 혼란입니까?  
아아! 내나라 날 버리고 어디로 갔나?  
(...)  
- <깨여진 서울> 부분

“六二五 사변당시 서울 강나루 山속에서” 씌여진 작품이다.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실존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는 복수화된 실재들과 혼란스러운 관계를 맺으면서 떠돌고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기표들의 장이 되어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 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성을 부리는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 “山도 골짜기도 안보이는 작은 길에/ 환히 터진 하늘이 싫고/ 맑게 들리는 새 소리도 조심스러/ 안 갈 수도 없는 외오리 十里길”(〈논드렁길〉)을 해매는 자아는 전쟁이라는 폭력 앞에서 철저히 내면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인은 “그대로 앉아 해를 지울까?/ 해가 지거든 다시 걸을까?/ 어제 자던

무덤 옆이라도 찾아 가자”고 작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들려오는 포격성을 “南에서 오는 기별”로 보고, 도리어 “나를 쏘아다고 나를 쏘아다고”라며 절규하기도 한다. 이는 곧 폭력적인 역사에 대한 역설적 저항이다. 이때 시인은 재관적 선험을 상징계가 아니라 현실로 잡았다. 이 대목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곧 주체와 세계를 넘어서서 이들의 일정한 관계맺음을 가능케 하는 차원이 다른 아닌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차원인 셈이다. 그러나 전지에서 만나는 좌절감과 절망감의 서사를 시인의 서정적 어조로 감싸는 데 『風浪』의 장점이 있다.

자비로운 天國이다.

짚 북덕이 요를 삼아  
나는 소와 함께 꿈길을 간다.  
사람이 이처럼 삼가지는 땅에  
소야 너는 의적이 우정에 충실코나.  
네 누은 忍耐의 王國  
먼 슬픔들이 소라한 밤엔  
연못처럼 깊은 내 마음 벽에  
무척 기대고 싶어진다.

친구야! 네 주인은 오늘밤쯤  
레닌의 나라로 추방을 갔을게다.  
죄가 꽃처럼 변화한  
人民共和國으로 갔을게다.

눈을 감어 쉬자.  
오늘밤 내 눈물은 내가 마셔주마.  
- <오양간의 하루밤>

인용시는 “1950년 8월 10일 광주 근방에서” 쓰여진 작품이다. “사람이 이처럼 삼가지는 땅에”서 소와 더불어 위안을 나누는 시적 화자는 ‘인내’라는 자기 인식에서 통시적 자기동일성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나 모든 상황이 “자비로운 天國”이기를 회원하는 것이 그의 인생 태도이며 “짚 북덕이 요를 삼아/ 소와 함께 꿈길을” 가는 것이 그의 시작 태도이다. 그의 전쟁 체험들인 이런 태도 속에 통일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의 개인적 동일성을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

고 이 개인적 동일성, 곧 그의 인격이 통시적 동일성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제2부 「戰爭篇」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발생된 시인의 애국시편들이다. 1부나 3부에 비해서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전쟁의 참혹한 실상이 리얼하게 드러나고 반공사상을 무장한 자유주의 고취라는 시적 의도가 생경하게 드러난다. <비밀전쟁>, <수용소의 밤>, <先鋒慈>,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들의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눈은 환하게 띄인 湖水요,  
 불은 少年처럼 타오르는 모습이  
 湖水같이 맑은 나라에  
 모란같이 고운 날에 살아야할 분인가 보오.

그런 나라가 임해지기 위해  
 무척 애쓰시는 보람에  
 그대 血管에 도는 피가 것처럼 빠르게  
 一線兵士에게 輸血이 되지않습니까?

千年 신라를 다스리던 화랑인들  
 그대의 쓴잔을 달다 마시오리까?  
 한나라 코리아를 위해서보다  
 세계를 질머진 오늘의 화랑이라면,

인류의 혼은 磁石처럼 연해 사는것,  
 한 집단이 이러나면 또 한 집단이  
 한 나라가 숨지면 또 한 나라가  
 幸福도 不幸도 一直線의 운명.

그대는 코리아의 自由를 위해서뿐이랴?  
 필립핀, 뉴질랜드, 미국, 영국, 불란서,  
 아니 원 세계의 自由를 위해서도 나선  
 偉大한 自由戰의 先鋒者!

山脈과 山脈에서  
 江과 江 사이에서  
 모여드는 兵士들을  
 그 우람찬 팔 안에 포용하고  
 적의 요란한 고함들 들리면

내나라 쳐부시는 용감한 기운에  
自由는 壓迫에서 해방 되고  
祖國은 그대 발 앞에 千萬里 뻗어 가리니

이러나 파도에도, 狂風에도 마다 말고  
끓는 피의 勇士로 祖國을 빼앗아 오소.  
나라와 나라들이 모여와도  
그대 앞서서 祖國을 도라오게 하소서.  
- <先鋒者(정일권 중장에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시적 주제가 노출되어 있는 작품이다. 직접적인 전쟁의 참상 고발과 함께 자유주의의 승리라는 시적 주제를 고취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단순한 계몽주의적 담론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는 편지라는 형식이다. 두루 알려진대로 편지는 자아와 세계의 소통구조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시인은 편지라는 교감의 형식을 통하여 내면의 서정성을 배경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정 형식이 자아와 세계와의 교감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감상적 낭만주의의 아류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시인은 자아와 세계와의 소통구조를 열어 줌으로써 시적 세계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여기서도 시인은 적극적인 자기 동일성의 맥락에서 서정성을 놓지 않은 셈이다.

고운 사람들이 살던  
옛나라 길엔 꿈이 그대로 이슬에 핀다.  
화랑이 넘나들던 山과 들이며  
동백꽃 저고리, 산호빛 나삼에  
우리 女王 노을 안고 거니시던  
그 王宮뜰도  
여기 歲月을 덮고 이끼속에 누었다.  
재앙의 땅을 피해 오고 가는 사람들  
람루한 옷자락엔 석양은 다정히  
그 맘에 비인 자리를 고이 만져주느니  
옛 서울 꽃등노리에 흥 겪던 밤이  
다시 한번 찬란해지는 이 길은 福되여라.  
- <경주스길>

인간과 대상간의 비억압적인 교감이 가능했던 때는 존재론적·인식론적 유

토피아였다. “고운 사람들이 살”고 “꿈이 그대로 이슬에” 피던 시대는 공동체적 화합 상태였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늘상 잃어버린 과거로만 존재하거나 인식된다. 공동체적 화합 상태는 부단히 위협받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것처럼 원환적인 화합이 위협받음에 따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유토피아적 추동력에 의해 시적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공동체적 유대의 자기확인으로서의 진리가 시에서는 자기 동일성을 통해서 표상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歲月을 덮고 이끼속에 누웠”지만, “재앙의 땅을 피해 오고 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시인은 경주땅 석양의 다정한 손길을 간청한다. 과거 평화롭고 흥겨웠던 시절의 부활을 부단히 기원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찬란해지는 이 길”이 복되기를 역사의 질곡 속에서 부단히 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됨이 가능한 것은 생경한 역사적 질곡의 고발보다 서정 어린 시적 화자의 목소리 덕분이다. 문학적 진리가 개념적 인식의 진리가 아니라 감성적인 자기인식의 진리<sup>15)</sup>인 셈이다.

두루 알다시피 자기 동일성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문학은 일차적으로 주체의 감성에 호소하지만 주관적 감성 자체가 실제 현실에 대한 인식적 상호작용의 산물인 것이다.

자아의 시점을 통해서 공동체적 이상에 접근하는 일은 서사적 운동 과정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서정적 자기인식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그들은 어느 경우이든 허구적 형식을 통한 주체의 자기인식의 표현으로 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실재계로서의 역사와 상호 작용하는 주체의 자기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서 문학적 표현 주체가 실재계와 상호 작용한다는 것은 억압적 체계에서 부단히 벗어나려는 욕망을 드러냄을 암시한다. 그것은 개념적 억압에서 벗어나 미결정성으로 탈출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실재계와 상호 작용하는 주체의 자기인식의 도정에서, 감성적 자율성을 의미하는 문학의 미결정성은 체계의 개념적 억압에서 탈출하는 미결정성과 결합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학 담론은 허구적 형식을 매개로 실재계로서의 진리에 접근한다. 문학 담론이 로고스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15) M. S. 까간, 『미학강의 I』(진중권 옮김), 새길, 1991, 290쪽.

사랑하는이!  
당시는 나의 짝, 나의 거룩한 님,  
눈을 잃고  
다리를 빼앗겼으나  
그 남은 생명찾아  
조국을 위해 마치고자 소원하는  
아아! 나의 자랑스런 님이여라.  
나는 임의 그대와 같은 나라에 낮고  
같은 山脈과 江줄기에 태어난 몸이어나  
祖國의 피에 이몸을 일우워난 처녀  
당신의 신부로 오늘을 맞이 하오매  
사랑하는이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 <당신의 신부로(상이군인 혼인식에서)>

“1951년 3월 25일 釜山서” 쓴 작품이다. 개인적 동일성은 어제의 ‘나’와 오늘  
의 ‘나’가 똑같다는 느낌이나 신념의 자아감각,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파악된  
‘나’가 무엇이며 이 ‘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요컨대 자아형성의 문제이다. 모  
운숙은 『風浪』에서 바로 이런 자아형성의 과정을, 끊임없는 자기모험을 보여준  
다.

성한 몸이거나 전쟁 와중에 상처 입은 몸이거나 이 몸은 모두 사랑하는 나의  
님의 몸이다. “눈을 잃고/ 다리를 빼앗겼으나/ 그 남은 생명찾아/ 조국을 위해  
마치고자 소원하는” 님은 오히려 “나의 자랑스런 님이”다. 그래서 “祖國의 피  
에 이몸을 일우워난 처녀”로서 기꺼이 “당신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시인이 지닌 자기동일성은 역사의 질곡에 상관없이 사랑이 늘 내재하는 유  
토피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순환적 전망을 나타낸다.

제3부의 『抒情篇』은 해방 이후 틈틈이 쓰여진 시인의 아름다운 서정시초로 이  
루어져 있다. 전쟁기 피난시절 와중에 쓴 작품도 있고(<松島海邊>, <달>), 시  
기를 밝히지 않은 개인적 감성에 취한 연시들도 있으며(<기다림>, <그대 눈으  
로>, <모르겠어요>), 외국기행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도 있다(<하와이 색  
시들>, <타지마할>).

부드러운 神의 노래입니다.  
그 연한 자장가 소리는

들으십니까?

저 근심의 가치를 고히 웃기고 지나가는 물결 소리를!

하늘의 신부 저 아롱진 바다 곁은  
 百合꽃 사랑을 초밤에 수 놓습니다.  
 한쪽 푸른 물이 모여와서  
 나죽히 그 적은 언덕에 별을 부르고  
 긴 긴 달밤 그리운 노를 저으며  
 가신님 발자욱 자욱에  
 못잇는 노래를 전해 준다오.  
 - <松島海邊>

위 작품에서 시인은 하나의 의의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또한 긴밀한 연관의 연속적 순간들을 환기한다. 이것은 서정적 시간의 두 유형이다. 두루 알려진대로 서정시의 현재는 고립된 현재가 아니다. 시인의 의식상에 있어서 현재의 순간에 많은 과거들, 체험들이 동시적으로 공존해 있는 순간이거나, 이 순간 속의 상황들이 무엇이든 이것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의의있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 연속적 순간이다. “1951년 3월 25일” 쓴 위 작품에서 시인은 전시 상황에 아름다웠던 많은 과거들, 체험들이 동시적으로 공존해 있는 순간이거나, 이 순간 속의 사항들이 무엇이든 이것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의의있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 연속적 순간이다.

인용시를 비롯한 3부의 작품들은 전쟁기 작품에서 쉬 찾아볼 수 없는 서정의 세계에 마음껏 취해 있다. 이는 전쟁의 체험을 내면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 IV. 마무리

이 글은 모운숙의 『風浪』을 대상으로, 1950년대 전쟁기 시에 나타난 내면의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1950년대 전쟁기시가 창작된 기반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1950년대 전쟁시를 연구하는 일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은 사람살이의 모습과 그에 대한 문학적 응전 양태를 밝히는 작업이며, 나아가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된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여 마무리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시가 전쟁 체험을 의미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길이에 따라 장시와 단시가 있을 수 있고, 주제의 표출 방식에 따라 외면화와 내면화가 가능하다. 상황에 따른 저항의지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저항성과 간접적인 저항성 또는 적극적인 저항성과 소극적인 저항성이 가능하고, 체험의 장소에 따라 전방 체험시와 후방 체험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쟁 체험의 주체에 따라 군인시와 민간시가 가능하다. 이렇듯 다양한 전쟁 체험의 의미화 방식 가운데 모운숙의 『風浪』은 주제의 표출방식에 따라 내면의식에 충실한 작품이다.

둘째, 전쟁기에 나온 80여권의 시집 가운데 모운숙의 『風浪』이 각별한 이유는 전쟁기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한 데 있다. 많은 전쟁 체험시들이 생경한 장면 묘사나 적과 동지가 분명한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 반공사상에 골몰한 반면, 모운숙의 『風浪』은 전쟁의 상황을 구체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적 화자의 서정적 어조로써 전쟁을 내면화하는 데 바쳐져 있다. 곧, 서사와 서정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면서 전쟁의 체험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風浪』인 셈이다.

셋째, 『風浪』은 계몽적이고 단정적인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적극적인 자기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서정 양식의 본질을 충실히 재현해 내고 있다. 이는 『風浪』이 전쟁 체험을 내면화한 결과다. 이러한 점이 『風浪』을 여느 전쟁기시와 다른 맥락에 놓을 수 있는 대목이다.

『風浪』이 설득력 있는 한 권의 시집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전쟁기 삶이 고통스럽게 세상을 뒤덮고 있던 때 역사적 질곡으로서의 '풍랑'이 우리의 소망을 응원하기 때문이다. 『風浪』의 상상력은 추한 삶을 마취하려는 상상력이 아니라, 연대와 평화의 삶을 격려하는 상상력이다. 그래서 『風浪』은 갈라진 현실을 입맞춤처럼 묶어주는 사랑의 시편들이 되는 셈이다.

주제어: 모운숙, 風浪, 1950년대 전쟁기시, 내면의식, 전쟁체험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모운숙, 『風浪』, 대구 문성당, 1951.

### 2. 국내 논저

『文藝大辭典』, 학원사, 1962.

『臨時首都天日』, 부산일보사, 1985.

경남지역문학회, 『지역문학연구·6: 경인전쟁과 한국의 지역문학』, 불취, 2000.

국방부 정훈국 엮음, 『정훈대계 I』, 국방부, 1956.

김윤성, 「6·25와 문단」, 『해방문학20년』(한국문인협회 편), 정음사, 1966.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논고』, 아세아문화사, 1978.

김재홍, 「6·25와 한국의 현대시」,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김재홍, 「한국근대서사시와 역사적 대응력」, 『문예중앙』 1985년 가을호.

김재홍, 『한국전쟁과 현대시의 응전력』, 평민사, 1978.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문덕수 엮어 지음, 『세계문예대사전』, 성문각, 1975.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장시 연구」, 부산대 국문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8.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박태일, 「1950년대 한국 전쟁시 연구」, 『경남어문논집』 제5집,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1992. 12.

오세영, 「6·25와 한국전쟁시 연구」, 『한국문화』 제13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12.

오세영, 「한국전쟁문학론 연구」, 『인문논총』 제28집, 서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2. 12.

오양호, 「戰後 35년의 韓國詩·1」, 『시문학』 통권 172호, 시문학사, 1985.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문총창립과 문화운동10년소관』, 선광, 1957.

한국문인협회 엮음, 『解放文學 20年』, 정음사, 1966.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한형구, 「1950년대 한국시」(문학사와 비평연구회 엮음),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1.

Bernard Law Montgomery, 『전쟁의 역사』 I (송영조 옮김), 책세상, 2001/개정 1판 2쇄.

Karel Kosik, 『구체성의 변증법』(박정호 옮김), 거름, 1985.

M. S. 까간, 『미학강의 I』(진중권 옮김), 새길, 1991.

<Abstract>

## A Study on the Inside Consciousness in the Poems appeared during the War of 1950s - centering around *Punrang* by Mo, Yun-Suk

Moon, Sun-Young

This treatise explains the resistance consciousness in the poems showed in wartime of 1950s, laying stress on *Punrang* by Mo, Yun-Suk. In *Punrang*, Mo wrote poems about literary and life, so it is natural for we to consider her as poet.

Mo's *Punrang* has a suggestive significance with the following coherence. First, *Punrang* shaped wartime-life of 1950s, besides, it was presented a view about overcoming the wartime-life. *Punrang* consisted of 'Chapter of the Patriot', 'Chapter of the War', 'Chapter of the Lyric', tired to cope with the difficult living during the war with the power of love and salvation through each poem.

Second, *Punrang* a poem composed a series of poems. The subtitles of each chapter embody descriptive structure, also each chapter is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refore *Punrang* gives a concrete form to a poem in wartime of 1950s, for example *An Yeon-Hee Upland*, *A Directive* by Lee Young Soon, *Songs of evil* by Park Geo Young, *An uneasy Saturday* by Kim Jong Mun, *The Hymn about the Southern Sea* by Kim Young Ho

Third, this treatise doesn't purpose to examine closely art and aesthetic features but purposes to study on wartime-life and a prospect of wartime-life, for Mo is a thinker and religious man rather than a poet. So this writing has intention of examining *Punrang* as cultural sociological suggestion.

Mo as "a fighting pacifist" revealed enough his true character in *Punrang*. She showed her will to examine fetters of history and shake off the fetters in *Punrang*. Above all things, her peaceful spirit to cast off the yoke by means of the power of love and salvation rather a bloody fighting has a suggestive significance from the viewpoint of understanding a poem during the War and suggesting another standpoint.

Key Words: Mo, Yun-Suk, *Punrang*, Poems in wartime of 1950s, Inside Consciousness, Wartime-life